

차 정부 적폐 수사 사실상 마무리 국면

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졌던 여러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4일 국정원 뇌물상납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 국정농단 사건 등 총 22개 혐의를 받게 됐다.

7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검찰이 이명박 정부 관련 '적폐수사'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횡령,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조운선 전 청와대정무수석 등 일부 인사들에 대한 처리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는 마무리 수준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 이 사건의 핵심인사인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문고리3인방'인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청와대 전 비서관과 이병기,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이 대

지난 4일 국정원 뇌물 박근혜 추가기소 다스 비자금 비롯 MB 각종 의혹에 집중

부분 구속되거나 이미 기소됐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의 행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명박 정부 관련 각종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사건 수사,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이면 계약 의혹,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이 주요 대상으로 꼽힌다.

우선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사건 수사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다소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기무사령부의 국방부 조사 태스크포스(TF) 감청 정황 등 이슈도 검찰

수사의 압축 중 하나다. 검찰은 국방부 TF 등과 공조를 통해 수사를 올해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이면 계약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미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 조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조사 정황 자체보다 이명박 정부의 이면계약이 있었는지, 어떤 이면계약을 했는지에 더 관심이 쏠리는 양상이다.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UAE 이면계약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는 사안이 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수사도 진행 중이다. 바로 다스 실소유주 의혹 관련 수사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장모 읍서넬캐피탈 대표이사인 이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전담 수사팀에서는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와 이상은 다스 회장 등에 대한 참여연대 고발 사건을 맡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지만 모두 다스 실소유주 관련 의혹을 겨냥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2016년부터 이어온 박 전 대통령 관련 국정농단 수사는 이제 끝이 보이는 느낌"이라며 "검찰의 이른바 '적폐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는 이명박 정부가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중일전쟁 때 헤어진 中 남매 78년만에 상봉

1937년 시작된 중일전쟁 당시 헤어졌던 중국인 남매가 78년만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되어 만났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현지매체 광저우데일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왕치웨이(90·여) 할머니는 최근 중국 광둥성 산터우에 살고 있는 남동생을 78년만에 만나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왕 할머니는 2차 중일 전쟁 중에 엄마와 두 명의 여동생과 함께 광둥성 차오산에서 일본군을 피해 푸젠성으로 도망쳤다. 남동생을 포함한 나머지 가족은 광둥성에 남아있었다. 푸젠성에서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극심한 가난과 기아의 공포 속에서 결국 왕 할머니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을 팔아 버렸다.

왕 할머니는 어머니를 떠난 그 날을 기억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은 딸들을 먹이기 위해 잔디를 뜯고 나무 껍질을 긁어내느라 거칠고 피부성이 가 돼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리고 그 날 왕 할머니의 어머니는 깻묵 반죽을 건내며 "가지고 가서 배고플 때 꺼내 먹으라"고 말했다.

팔려간 그곳에서 왕 할머니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다.

왕 할머니는 1960년대 말 처음으로 어머니, 형제, 자매를 찾아왔다고 마음을 먹었다. 푸젠성에 문의를 했지만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신 상태였다.

그는 "나는 항상 그들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매일 그들이 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비라며 기도했다"고 말했다.

왕 할머니는 2016년 6월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한 단체에 연락을 했고, 이 단체는 산터우 지역의 한 시골마을에서 이들과 나이가 기록돼 있지 않은 왕 할머니의 남동생을 찾아냈다.

왕 할머니는 아들, 남동생과 함께 오는 2월 춘절 연휴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서 스파이더맨 셀카 찍던 유학생 추락사

대만에서 유학하던 말레이시아 대학생이 기숙사 옥상에서 스파이더맨 복장으로 인증사진을 찍다가 추락해 숨진 채 뒤늦게 발견됐다고 타이완타임스, 차이나 타임스 등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사망한 남학생은 만 30세로彰化縣(彰化縣)에 있는 대에대학에 유학 중이었다. 그는 지난 3일 오후 8시께 기숙사 옥상에서 스파이더맨 복장으로 셀카를 찍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차이나 타임스에 따르면, 숨진 남학생은 기숙사 지하주차장 차도에서 머리에 심한 부상과 과다 출혈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교직원과 경찰, 응급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남학생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는 이미 숨졌다.

경찰은 기숙사 마지막 층인 5층에서 자동타이어가 맞춰진 숨진 남학생의 스마트폰과 삼각대를 발견했다. 한 경찰관은 리버티 타임스에 남학생이 추락하기 전 옥상 난간에 서 있거나 매달리는 등 위험한 사진을 찍기 위한 포즈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친구들은 경찰에 남학생이 평소 스파이더맨 복장으로 건물에 올라가 포즈를 취하며 사진 찍기를 좋아했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멕시코서 참수된 머리 5개 놓인 택시 발견

미약 범죄집단 간 폭력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멕시코 베라크루스주의 트라코팔탄에서 지난 5일 참수된 머리 5개가 택시 본넷 위에 놓여진 채로 발견됐다고 미구엘 앙헬 유네스 베라크루스 주지사가 6일(현지시간) 말했다.

택시 안에서는 목이 잘린 시체 5구가 든 플라스틱 가방들이 서면 메시지와 함께 발견됐다고 유네스 지사는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현지 언론들은 베라크루스주가 미약 범죄조직 제타스와 잘리스코 뉴 제너레이션 간의 전쟁터로 변했다고 전했다.

한편 멕시코시티에서는 엘 우니버살리의 편집 간부 제라르도 마르티네스가 강도를 당해 숨졌다.

신문은 마르티네스가 숨지기 직전 경찰에 "총을 든 남성 2명에게 강도를 당했다"고 전화로 신고했다며 그의 죽음이 취재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시스



연일 구름인파가 물린 화천 신천어축제 강원 화천신천어축제 이틀째인 7일 오후 9도의 추위속에도 수많은 인파가 물러 얼음늪수를 즐기고 있다.

새해 첫 주말 광주 전남 화재 잇따라

새해 첫 주말, 축사와 주택, 야산등 광주·전남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6일 오전 8시37분께 광주 광산구 내산동 모 농장에서 불이 나 돼지 축사 1개 등이 모두 불에 탔다.

이 불로 자체 진화중이던 농장 관계자 1명이 손에 화상을 입었고, 돼지 70여마리가 폐사했다. 불은 소방서 출동 14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어 오전 10시21분께 전남 강진군 강진읍 최모(66)씨의 주택 거실에 있던 난방용 목재난로 연통에서 불이 나 거실 66㎡를 태운 뒤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고, 가구 등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만 발생했다.

오후에도 화재는 이어졌다. 오후 1시45분께 영광군 염산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인야 1000㎡가 잿더미로 변했다. 119 대원과 군청 공무원 등이 진화에 나서 불길은 오후 5시께 잡혔고, 이렇다할 인명피해도 없었다.

오후 3시45분께는 영광군 백수읍 한 야산에서 쓰레기 소각 중 화재가 발생, 인야 1500㎡가 불에 탔다.

이용규 기자

전남도, '무면허·어장이탈' 불법 김 양식시설 집중단속

오는 19일까지 2주간...12개 연안 시군 합동 실시

전남도는 고소득 품종인 김의 본격적 생산 시기를 맞아 불법시설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불법 김 양식시설 일제정비 및 집중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김 수출이 5억 달러를 돌파하고 산지 물김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여수 조도, 고흥 시산도, 완도 외모도 등 일부 해역에서 무면허, 어장 이탈 등 불법 시설이 크게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단속은 12개 연안 시군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어업지도선 12척과 어장정화선 3척을 동원, 어선 등 선박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불법 양식시설에 대해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하고 김 양식장에서의 유해약품 사용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우심해역의 불법 김 양식시설물에 대해 지진 철거로써 행정대

김정환 기자

다들, 안녕하시죠?

우리 남편은요... 양치로 죽어 있습니다.

다들 건강검진으로 조기발견해서 수술도 받고, 이제 3개월에 한 번 검사만 받으면 될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돌이켜 보면 놀치고 지내, 그래서 잇고 지내 시가들을 반성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랄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영양아 건강검진

암 검진

발생률이 높고 조기진단으로 치료할 수 있는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합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간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1577-1000

h-well 국민건강보험

1577-1000